

## 서론

이 글은 ‘감응’, ‘결측’, ‘윤리’라는 세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감응\*1)은 기호화되기 이전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원초적인 침입이자 타자의 요청이다. 지각·의식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누락될 수 있다. 결측은 실패한 감응이 구조적으로 유예된 채 지속되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윤리적 요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시간 구조의 개념화다. 즉, 결측은 요청-응답-판단이라는 선형적 윤리 구조 대신에 실패-유예-귀환이라는 반복 가능한 윤리의 시간성을 사유한다.

윤리를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붕괴 이후에도 감당되는 책임으로 본다. 이는 요청도 판단도 불가능한 윤리의 사각지대에서조차 주체가 멈추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는 감응의 사실에 기반한다.

1) 감응은 타자의 요청이 언어 이전에 주체를 진동시키는 사건이다. 이는 지각·의식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누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패는 윤리의 결락이 아니라, 특정한 계기를 통해 그 실패를 감당하고 있던 주체가 타인을 설득함으로써, 윤리는 비로소 언어화되고 사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정동과는 다르다.

## 1. 문제 제기

### ■ 전통적 윤리의 구조 (case)

감응(요청) → 지각 → 인식 → 응답/책임

전통적 윤리는 응답, 책임, 인식을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급진적으로 해체한 인물이 바로 에마뉘엘 레비나스다. 그는 타자의 요청이 응답 이전에 이미 주체에게 선도달한다는 비대칭적 구조를 제시하며, 윤리를 초월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윤리는 반드시 타자의 요청이나 도덕적 판단, 규범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존 윤리 시간 구조의 바깥, 설명되지 않는 지연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예제, 식민주의, 계급 폭력과 같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이는 오히려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비가시화되었다.

같은 장면에서도 누군가는 타자의 요청에 감응하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친다. 따라서, 윤리는 요청이 도달하지 않는 시간 성 안에서 감당하고 있던 자의 존재론적 진동에서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측의 문제의식이다.

윤리적 요청은 결코 부재했던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도 누군가는 폭력을 감지했고, 누군가는 끝내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차이는 감수성의 문제, 정치적 억압, 혹은 도덕적 우열로만 환원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응답되지 않았던 폭력적 구조들이, 훗날 윤리적 요청으로 귀환되며 비로소 비윤리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윤리의 사후적 형성은 도덕적 결핍이나 감수성 부족 문제가 아니다. 감응이 지각이나 인식에 진입하는 데, 구조적으로 실패했거나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응답한 이들 모두를 비윤리적 주체로 본다면, 윤리적 주체란 애초에 도달 불가능한 이상으로 퇴행한다. 핵심은 '왜 그때는 요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요청들이 응답되지 않은 채 유예되어 있는가'이다.

### 3. 개념

#### ■ 결측: 귀환적 윤리 구조 (case)

감응(요청) → (지각 실패) → 유예 → 귀환 → 재지각 → 인식 → 응답/책임 (반복)

감응이 지각/인식되지 못한 채 유예되었다가, 귀환하며 윤리로 전화되는 구조.

결측(結觸)\*2)은 감응-지각/인식 실패-유예-귀환이라는 비가시적 감응의 구조적 반복 가능성을 통해, 윤리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사건 이전의 층위에서 묻는다. 요청은 처음부터 언어 이전의 층위에서 침입하지만, 지각 혹은 인식의 실패로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

언어로 도달하지 않고, 보편적 도덕성 역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다. 감응은 항상 어긋나고, 요청은 유예된 시간 속에 남는다. 법은 이러한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응답-책임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최후의 기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뒤늦은 지각과 응답의 구조.

다시 말해, ‘실패한 감응이 어떻게 시간을 통과해 윤리적 요청으로 전화되는가’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윤리적 주체란 “법에 적힌 명제” 또는 “보편적 도덕성에 부합”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감응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려는 태도임을 드러낸다.

윤리적 책임은 타자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타자의 요청을 항상 놓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촉은 이 실패를 윤리가 도래할 수 있는 시간의 가능성으로 전환시킨다.

2) ‘결촉(結觸)’은 ‘맺을 결(結)’과 ‘닿을 촉(觸)’의 합성어로, 단절된 듯 보였던 감응이 지워지지 않고 유예된 채 매듭지어져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다시 닿을 수 있는 윤리적 잠복 상태로 지속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결촉에서의 귀환은 실패한 감응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 다시 조직되어, 윤리로 전화될 수 있는 잠복된 조건의 재구성을 의미한다.